

6. 벨리즈의 정치·경제 동향

가. 일반개황

일 반	위	치 : 멕시코, 과테말라, 대서양과 접경
	면	적 : 23천 km ² 한반도의 1/10)
	기	후 : 아열대
	인	구 : 30만 명(2009)
	수	도 : Belmopan(2만 명)
	민	족 : 메스티조(49%), 크레올(25%), 마야(11%), 기타(15%)
언	어	어 : 영어
	종	교 : 가톨릭(50%), 성공회(27%)
정	독	립 일 : 1981. 9. 21(영국)
	정	부 형 태 :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국	가 원 수 : 영국여왕(Dean Barrow 수상)
	의	회 : 양원제(상원 12석, 하원 29석)
	주	요 정 당 : 국민연합당(PUP), 연합민주당(UDP)
치	국	제 기 구 가 입 : UN, IMF, IBRD, CARICOM, WTO, OAS, UNESCO, CDB 등
	G	D P : 11억 달러(2009)
경	1	인 당 G D P : 3,667달러(2009)
	화	폐 단 위 : Belizean dollar(BZ\$)
	회	계 연 도 : 4. 1 ~ 3. 31
	산	업 구조(2008) : 농림수산업 29%, 제조업 17%, 서비스업 54%
제	주	요 수 출 품 : 설탕, 감귤, 바나나, 수산물
	주	요 수 입 품 : 기계류, 식품, 연료, 공산품
	주	요 부 존 자 원 : 보크사이트, 금, 형석, 사탕수수, 바나나
	경	제 적 강 점 : CBI 수혜국
	경	제 적 약 점 : 높은 대외의존도, 부족한 노동력

나. 약사

- 1638년 : 영국 선원에 의해 영국인 거주지로 개척
- 1798년 : 스페인, 벨리즈 지역 영유권 영국에 이양
- 1862년 : 영국 자메이카 총독이 관할하는 왕실 식민지로 편입
- 1871년 : 영국 식민지인 영령 온두라스(British Honduras)로 공식 선언
- 1884년 : 영국 직할 식민지로 분리
- 1964년 : 자치정부 수립
- 1973년 : 국명을 영령 온두라스에서 벨리즈로 개칭
- 1981년 : 영국, 벨리즈, 과테말라간 벨리즈 독립 합의
- 1981년 9월 21일 : 영국으로부터 독립
- 1998년 8월 : 무사(Said Musa) 총리 취임
- 2003년 3월 : 무사(Said Musa) 총리 재취임
- 2008년 2월 : 바로우(Dean Barrow) 총리 취임

다.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제 성 장 륜	4.6	1.2	3.8	-0.9	1.6
재 정 수 지 / GDP	-2.0	-1.1	0.6	-3.7	-3.1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4.2	2.3	6.4	0.3	4.4

□ 2009년 이후 경기침체 지속

- 벨리즈는 농업, 수산업, 관광업이 주된 산업이며, 주요 산품은 설탕, 감귤류, 바나나 등 농산물과 새우 등 수산물이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농산품의 작황 및 국제 시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최근에는 대미항로 증편, 유람선 관광 활성화 등에 힘입어 관광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벨리즈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였음.
- 1998~2006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연평균 4%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외채 누적으로 인해 외채위기가 발생하여 채무재조정이 실시된 2007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20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와 홍수 피해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0.9%)을 기록하였음.
- 금년에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객 수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전개발 사업 활성화 등에 힘입어 경제가 소폭 회복하여 금년 전체로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고정환율제의 영향으로 물가는 안정세

- 2BZ/US\$로 고정시킨 환율제도에 힘입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8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4%에 이르렀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시 0.3% 수준으로 낮아졌음.

□ 공공부채 누적으로 인해 재정적자 지속

- 1999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면서 국가채무도 누증해 왔음. 이로 인해 벨리즈 정부는 2007년 2월 민간채권자와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여 약 1.5억 달러의 채무를 삭감 받았으나, 채무삭감 이후에도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75.6%(2009년)에 이르는 등 국가채무 부담이 큰 상황임.
- 2008년에는 정부의 투자지출이 계획보다 적게 이루어져 재정수지가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7%로 급증함.
- 금년에도 벨리즈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의 -2.1%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 지연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GDP의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 국제경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25.4	-52.1	-144.4	-68.6	-106
경상수지/GDP	-2.1	-4.0	-10.3	-6.2	-9.2
상 품 수 지	-185	-216	-316	-231	-294
수 출	427	426	472	385	414
수 입	612	642	788	616	708
외 환 보 유 액	113	108	166	199	..
총 외 채 잔 액	1,018	1,045	990	1,000	1,040
총외채잔액/GDP	83.9	81.9	71.7	70.0	69.3
D. S. R.	20.5	18.4	13.4	14.5	12.8

□ 상품수지 만성적인 적자기조 지속

- 벨리즈의 주력 수출상품은 설탕, 감귤, 바나나 등의 농산품이며, 미국과 영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 실적은 기후조건과 국제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수출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는 2.3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대규모 경상적자 지속

-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도 대규모 적자 추세를 지속하였음. 2008년에는 FDI 관련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경상수지도 GDP의 -10.3%인 1.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규모 축소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의 -6.2% 수준으로 축소됨.
- 금년 들어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기 회복으로 관광수입과 해외근로자 송금이 증가하여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가 소폭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회복세 전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라. 정치·사회동향

□ 영국연방의 일원

- 벨리즈는 17세기 이후 영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식민지가 되었으며, 1973년에는 국명을 ‘영령 온두라스’에서 ‘벨리즈’로 개칭하였고, 영유권을 주장해 오던 과테말라와 영국 등 3개국 회담의 결과 1981년 9월 독립함.
- 영국연방의 일원으로 영국 여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음.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12명의 선임의원, 하원은 5년마다 보통선거에서 선출되는 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합민주당(UDP) 집권

- 2008년 2월 총선에서 야당인 연합민주당(UDP)이 승리하여 10년 만에 집권하였고, 딘 바로우(Dean Barrow)가 수상으로 취임함. 연합민주당(UDP)은 하원 31석 중 25석을 차지하는 등 집권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확고히 장악하고 있음.

□ 치안불안 가중

-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강도 사건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폭력조직 간의 세력다툼이 지속되는 등 치안불안 심화되고 있고, 경찰의 무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미의 마약 운송루트로 이용됨에 따라 마약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미국은 중미의 마약퇴치계획인 메리다 계획을 추진하면서 벨리즈에 1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미 국무부는 ‘국제 마약 퇴치 전략 보고서’에서 벨리즈 정부의 마약퇴치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부패 만연, 경찰폭력 증가, 인신매매 등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 과테말라와의 영토분쟁 지속, 여타 국가와는 원만한 관계 유지

- 과테말라와의 영토분쟁은 양국간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과테말라는 현재 벨리즈 영토의 절반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기타 중미, 카리브 국가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대만은 동국에 대해 향후 4년간 50백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는 등 동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

- 2008년 6월 OECD는 동국이 2007년 채무재조정 이후 외채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Moody's도 동국 신용등급을 B3로 상향조정함.

- OECD : 6등급('08. 6) → 6등급('09. 7)
- Moody's : Caa1('07. 2)

□ 채무재조정 실시

- 동국은 2007년 2월 민간채권자와 기존 외채를 신규 본드로 스왑하는 방식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여 총 571백만 달러의 민간채권자에 대한 외채 중 120백만 달러(현가 기준으로 21%)를 삭감 받았음.

- 2007년 2월 당시 벨리즈의 총외채 규모는 934백만 달러였으며, 이중 민간채권자 외채가 571백만 달러, 공적채권자 외채가 364백만 달러였음.

□ 대외지급능력 약화 우려 지속

- 동국은 전임 무사(Musa) 정부(1998~2008년) 시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 인해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 채무재조정 이후에는 10억 달러(2009년 기준 GDP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채무재조정 이후에도 외채규모가 동국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과중한 상황임. 특히, 최근에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동국 외채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대외지급 능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바. 향후 전망

- 중미의 소국인 벨리즈는 2007년 채무재조정 이후 소규모 유전개발과 관광산업 발전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 집권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확고히 장악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국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채무재조정 이후에도 외채규모가 과중한 상황이며,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동국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